

## 삼세대간 지혜와 지능의 발달 비교\*

권 유 경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성인기 지적 능력의 다차원적, 다방향적 발달을 조사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삼세대(청년 자녀, 중년 부모, 노년 조부모세대)를 대상으로 지혜와 지능을 조사하였다. 지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첫째, 각 연구대상은 5가지 지혜기준(사실적 지식, 과정적 지식, 인생맥락적 사고, 상대적 사고, 불확실성의 인식)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평가하였다. 둘째, 이 기준에 대하여 각 대상은 다른 두 가족들에 의하여 평가를 받았다. 셋째, 지혜설문지를 사용하여 불확실한 인생위기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자기자신의 평가, 타인에 의한 평가와 객관적 수행간에 유의하지만 크지 않은 관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들 방법들은 서로 관련되지만, 지혜의 다소 다른 측면들을 재는 것으로 보인다.

지혜는 청년 자녀, 중년 부모와 노년 조부모세대 간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노년세대가 지혜측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는 못하였으나, 연령이 각 세대내 지혜설문지 수행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청년세대에 유리하게 나타난 동시출생집단효과로인해 지혜의 연령에 따른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유동적 지능과 결정화된 지능은 모두 세대간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지혜는 세대쌍들간 유의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전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노년층의 인구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노년기의 발달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노년에 대한 고정적인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고령에 이룰수록 인간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퇴보하며, 노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고 죽음까지 발달적으로 정지된 삶을 사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고령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세대들을 이끌고 그들의 존경을 받는 노인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생애 발달관점에서 노년기는 그 어느 발달시기와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목표가 있고, 발달의 잠재성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시기이다. Erikson은 노인들이 노년기의 발달적 과제인 자아통합(ego integrity) 대 절망(despair)이라는 내적 갈등을 통해서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껏 살아온 삶이 새로운 의미로 다시 엮어진다. 소망, 의지, 목표, 능력, 성실성, 사랑, 그리고 배려, 이 모든 것이 최대로 성숙되어서 지혜라는 포괄적인 인생 의미로 전환된다" (Erikson, Erikson, & Kivnick,

\* 이 논문은 1995년 미국 Cornell 대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986, p. 55-56). Erikson의 이론에서 지혜는 노년기의 새로운 발달 가능성 및 발달 목표를 의미한다.

Erikson 이후로 지혜가 전생애 발달이론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e.g., Baltes & Smith, 1990; Birren & Renner, 1977; Clayton & Birren, 1980; Ryff, 1984). 전생애 발달이론의 주요강조점은 행동의 여러 측면들이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Denney, 1982; Dittmann-Kohli & Baltes, 1990; Labouvie-Vief, 1981). 즉, 한 발달시기에 여러 기능 영역들간 동시에 증가 뿐 만 아니라 감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 정보처리 기능에 해당하는 유동적 지능 (fluid intelligence)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지만, 맥락적이고 지식체계에 토대화한 결정화된 지능 (crystallized intelligence)은 전생애를 통해 증가하거나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Dittmann-Kohli & Baltes, 1990; Horn, 1978). 이런 발달적 변화에 대하여 노인들은 유동적 지능에 덜 의존하고 축적된 인생 지식과 같은 실질적 지능에 더 의존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의 기능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Baltes와 Baltes (1990)는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가 선택 (selection), 극대화 (optimization)와 보상 (compensation)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인생 후반기의 성인은 환경적인 요구, 개인적인 준비성과 생물적 능력에 수렴하는 소수의 인생 영역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이는 이 시기의 다른 일반적인 기능 쇠퇴를 보상하여, 나아가 심리적 적응성 및 효율적인 인생살이를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지혜는 이러한 인생 후반기에 선택되고 극대화될 수 있는 소수의 영역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 (Baltes, Dittmann-Kohli, & Dixon, 1984).

Baltes를 중심으로 Berlin Group (e.g., Smith & Baltes, 1990)은 지혜를 평생동안 획득된 인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는 실질적 지능으

로 보았다. 지적 능력의 실질적 형태에 대한 관심은 노년학 분야에서 관심이 계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실질적인 생활 지식은 전통적인 지능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유동적 지능과는 달리 노년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하였다 (e.g., Blanchard-Fields, 1986; Cornelius & Caspi, 1987; Labouvie-Vief, 1981, 198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지혜어왔다 (Baltes et al., 1984; Baltes & Smith, 1990; Ryff, 1984).

Erikson의 이론이 인생 후반기 발달에서의 지혜의 역할을 이해하는데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지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정의나 개념 체계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Erikson 이후에 전생애 발달이론가들의 계속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오랫동안 경험적 연구에서 도외시해온 이유는 그 개념적 복잡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선행연구가 드물고, 현존하는 경험적 연구는 국외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소수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지혜에 대한 연구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부류로서, 대부분의 연구들 (e.g., Clayton & Birren, 1980; Holiday & Chandler, 1986; Maciel, Sorwarka, Smith, Baltes, 1992; Sternberg, 1985)은 지혜의 암시적 이론 (implicit theories)에 초점을 두었다. 이 접근은 심리학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지혜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여, 그들의 공유된 문화적 의식에 기초로 비형식적으로 표현된 지혜에 대한 개념체계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번째 부류의 연구들 (e.g., Smith & Baltes, 1990;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은 객관적인 과제수행을 통해 지혜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소위 지혜의 명시적 이론 (explicit theories)은 심리학자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과 개인의 과제수행을 포함한다.

Berlin Group은 지혜를 인생사에 관한 고도로 숙련된 지식체계로서, "근원적이고 중요하지만, 어렵고 불확실한 인생문제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altes & Smith, 1990). 그들은 지혜를 인생문제들에 대한 고도로 발전된 지식체계로 보고, 지혜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로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지식의 체계로서, 지혜에 관련된 지식은 인생에 관한 풍부한 '사실적 지식 (factual knowledge)'과 '과정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을 포함한다. 다른 3가지 지혜의 기준-'인생맥락적 사고 (life-span contextualism)', '상대주의적 사고 (relativism)', 와 '불확실성의 인식 (uncertainty)'은 성인의 성숙된 사고과정을 반영하는 초인지적 차원을 나타낸다 (Baltes & Smith, 1990).

Berlin Group은 그들의 조작적 정의에 기초하여 지혜에 관련된 지식의 개인차를 측정하였다. 독일 성인들에게 인생위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think-aloud 방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및 조언들을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집된 반응의 내용과 구조를 지혜의 5가지 기준에 비추어 질적으로 분석하고 채점하였다 (e.g., Smith & Baltes, 1990; Staudinger et al., 1992). 그들의 연구결과는 지혜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기대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노인들은 그들의 경험에 관련되는 지혜 과제에서 연령이 낮은 성인보다 더 잘 수행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많을수록 항상 더 잘 수행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지혜 과제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한 사람들은 청년, 중년, 노년 집단에 거의 같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Smith & Baltes, 1990).

의심할 바 없이, Berlin Group의 조작적 정의와 경험적 연구는 지혜연구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적지않은 개선점들이 요청되고 있다. Berlin

Group이 사용한 이야기들이 지혜를 필요로 할만한 불확실하고 어려운 인생문제를 표현하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고, 그 수나 범위가 인생문제를 대표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지식이란 문화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Baltes & Baltes, 1990), 연구대상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인생문제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think-aloud 방법으로 수집된 반응을 훈련된 전문가가 채점하는 과정이 연구자들의 편견을 포함할 가능성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지혜에 대하여 암시적 접근과 명시적 접근으로써 접근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기보다는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 학자들 (e.g., Sternberg, Conway, Ketron, & Bernstein, 1981)은 지혜의 암시적 연구가 구조화된 측정을 타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인들은 본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어려운 인생 문제에 대처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였고, 또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평가 받았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와 함께, Berlin Group의 지혜에 대한 정의를 통합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지혜설문지는 우리나라 성인의 지혜에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생 과제와 채점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지혜가 성인기에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생 후반기에 성인들은 인생 위기에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Baltes 와 Smith (1990)는 연령이 지혜의 획득에 필요조건이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판단은 풍부한 지식체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감정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성숙한 사고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혜에 관련된 지식체계는 도랫동안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으므로, 오래 산 것이 지혜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이 가설을 직접적으로 지지할만한 연구는 드물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성인기 지능의 다방향적 (multi-dimensional) 발달에 대해 지지해왔다. 지식에 기초한 실질적 지능 (e.g., Cornelius & Caspi, 1987), 결정화된 유형의 지적 능력 (e.g., 언어능력; Horn, 1978)은 노년기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특정영역에서 쌓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연구들 (e.g., Ceci & Liker, 1986; Perlmutter, Kaplan, & Nyquist, 1990; Salthouse, 1984)에 의하면, 전문지식은 연령, 교육, 또는 I. Q. 수준에 상관없이 한 영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경험으로부터 획득된다고 한다.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들 (e.g., Blanchard-Fields, 1986; Kramer & Woodruff, 1986)은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청년들 보다 감정적이고 애매모호한 문제들에 대해 더 성숙된 사고추리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성인기의 지혜 발달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노년기 조부모, 중년기 부모, 청년기 자녀세대를 표집하여 가족 내 삼세대의 지혜를 비교하였다. 우리 나라 현 노년세대는 아랫세대들이 듣기만한 일제시대 및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사회적 고난을 직접 겪었다. 노년세대는 인생을 오래 살았을 뿐 아니라, 많은 시대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가족 내에서 노년세대는 문화적 가치와 원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위치를 지녀왔다. 한국갤럽조사 (1990)에 의하면, 현대 우리 나라 노인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성인자녀와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삼세대 내에 살고 있으며, 미국 노인들 보다 아랫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와 노화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가 산업화할수록 노인의 지위는 낮아진다고 하

였는데 (Gutmann, 1987),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의 현세대들은 독립과 자아성취에 치중하고 있고, 노인의 지위도 바뀌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이전에는 가족 내에서 노인들에게 맡겨졌던 많은 역할들이 다른 성인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윗세대의 지혜가 얼마만큼 도전 받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삼세대의 지혜를 비교함으로써 지혜의 연령/세대 추세를 조사하였다. 또한, 지혜의 발달 경향을 다른 종류의 지적 능력들의 발달경향과 비교하였다. 이런 여러 다른 지적 능력들에 따라 감소와 증가가 공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청년기 자녀세대는 유동적 지능에서 윗세대 보다 더 잘 수행하고, 결정화된 지능과 지혜에 관련된 지식의 수행은 세대간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발달적 경향뿐만 아니라, 지혜와 다른 지적 능력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Berlin Group은 지혜와 결정화된 지능은 기본적 인지처리능력 보다는 지식의 축적과 경험을 반영한다고 보고, 지혜를 결정화된 지능의 고도화된 종류로 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결정화된 지능과 성인기의 실질적 능력간의 유의한 관계를 경험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e.g., Cornelius & Caspi, 1987; Maciel et al., 1992). 소수이긴 하나,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지혜에 관련된 지식과 실질적인 문제해결과제가 유동적 지능의 수행과 더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Maciel et al., 1992). 또한, 지금까지 지혜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수행을 통합한 연구가 없어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였다. 지능에 관한 연구 (e.g., Cornelius, Kenny, & Caspi, 1989; Sternberg, 1985)들을 토대로, 지혜의 속성에 있어서의 주관적 평가는 각 지능검사에 따라서 다른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지혜와 결정화된 지능간의 개념적 유사성으로 인

하여, 지혜에 대한 비형식적인 평가는 결정화된 지적 능력에 더 관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지혜의 유사성을 조사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은 지혜에 관련된 지식체계를 공유함으로써, 실제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학습과 관찰을 통해 지혜를 간접적으로 획득할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즉, 지식이 풍부한 조부모나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역할 모델과 정보 전달자가 됨으로써, 자녀들은 윗세대의 풍부한 인생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혜가 가족내 세대간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삼세대 가족 40가구로부터 각 세대 1명씩, 총 성인 120명이 참여하였다. 성인초기 자녀세대 (40명; 남자 21명과 여자 19명)의 평균연령은 21.1세 (연령범위 17세 - 26세)였으며, 중년기 부모세대 (40명; 남자 17명과 여자 23명)의 평균연령은 49.7세 (42세 - 61세)였으며, 노년기 조부모세대 (40명; 남자 18명과 여자 22명)의 평균연령은 72.6세 (62세 - 87세)이었다.

삼세대간 교육배경은 큰 차이를 보였다.<sup>1)</sup> 조부모세대가 교육적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였고, 자녀세대가 교육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1. 지혜의 주관적 평가

1) 자녀세대는 고등학교 (42.5%)나 대학교 (57.5%)를 현재 다니거나 졸업하였다. 부모세대는 국졸이 2.5%, 중졸이 22.5%, 고졸이 45%, 대학이상이 25%이었다. 조부모세대는 무정규교육자가 40%, 국졸이 42.5%, 중졸이 7.5%, 고졸이 7.5%, 대학이상이 2.5%이었다. 연구대상의 학력은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분포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90)를 대체적으로 대표하였다. 다만 청년과 중년층만이 전체수준 보다 다소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

지혜 속성들의 본보기성 (prototypicality) 평가. 우리 나라 성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로움의 속성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Berlin Group (e.g., Maciel et al., 1992)이 수집한 지혜속성목록에서 지혜의 5가지 기준을 대표하는 60문항들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45명 성인들 (20 - 70세)로 하여금 '각 항목이 지혜로운 사람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를 5점 척도 (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게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에서 얻은 평균 평가점수의 순서대로 60개 항목들을 나열하였다. 이 순서에 따라 5가지 기준 마다 3개 항목씩을 선정하였다. 즉, 60개 지혜로움의 속성들 중 높게 평가된 15개 속성들이 선정되었다 (표1 참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한다'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얻었다. 표1의 평균들이 거의가 3점대를 나타냄으로써, 선정된 속성들이 지혜를 정의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Rosch의 분류이론 (e.g., Rosch, 1975)이 말하듯이, 지혜로움이라는 심리적인 부류도 정해진 소수의 속성들으로써 절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류 (예, 지능)와도 관련된 여러 속성 군집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였다. 60개 문항들이 이미 다른 문화권에서나마 지혜로움의 본보기적 특성들로 선정된 것들이었으므로, 표1의 15개 주요 지혜의 속성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의 최소한의 타당성 보장과 설문지의 양을 줄인다는 연구의 실질적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주관적 평가. 선정된 15개 속성들에 대하여 먼저 자신을, 그리고 함께 연구에 참여한 다른 두 가족구성원을 5점 척도 (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즉, 연구대상은 자기자신의 평가와 함께,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

표 1. Berlin Group의 5가지 기준에 따른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

기준	항목	M	SD
사실적 지식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한다.	3.66	0.94
	어려운 인생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보인다.	3.61	1.01
	평범하거나 유별난 인생 과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3.52	1.04
과정적 지식	조언을 해야할 적절한 때를 안다.	3.95	1.11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한다.	4.27	0.85
	한 단계씩 결정을 내려서 위험을 최소화한다.	4.09	0.81
인생맥락적 사고	인생의 여러 영역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분명한 우선 순위를 세워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안다.	4.04	1.22
	인생 문제마다 특히 중요한 영역이 있음을 식한다.	3.80	1.14
	개인의 인생 목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뀔 수 있음을 안다.	3.60	1.11
상대적 사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안다.	3.83	1.04
	인생과정이 개인의 목표에 따라 좌우됨을 안다.	3.63	1.10
	최상의 결정이란 개개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에 가능함을 안다.	3.56	0.98
불확실성의 인식	미래를 계획 할 때에 기대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	3.97	0.99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생결정을 내린다.	3.63	1.10
	이전 결정에 대한 근본적 사항들이 바뀌어서 이전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음을 안다.	3.39	1.11

에 의하여 평소에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지를 평가받았다. 항목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계수가 산출되었다. 자기평가에 있어서의 alpha계수는 .83이고, 타인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의 alpha계수는 .92였다.

## 2. 지혜의 객관적 측정

본 연구는 인생위기에 대한 지혜와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고, 인생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질을 구분 짓는 채점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설문지의 제작은 Goldfried와 D'Zurilla (1969)의 능력측정의 행동 분석적 방법 (behavioral-analytic method)에 기초하였다. 이 모형은 인간의 능력을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반응의 효율성 또는 적절성" (p. 161)으로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행동이란 "문제상황을 더 이상 문제스럽지 않게 바꾸고, 동시에 부수적으로 긍정적 결과들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하는 반응 또는 반응의 형태"

(p. 158)를 말한다.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 문제상황의 예들을 열거하고, 나) 각 상황마다 가능한 반응을 표집하고, 다) 각 반응의 효율성 정도를 여론을 통해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Goldfried & D'Zurilla, 1969).

**인생의 위기상황 선정.** 지혜설문지는 총 12가지 인생의 위기상황들을 담고 있다. 이 상황들은 다양한 생활영역 (가정, 직장), 성질 (이득, 상실), 그리고 주경험 연령층 (청년, 중년, 노년)의 문제들을 대표하고 있다. 지혜설문지는 Berlin Group의 지혜의 정의에 기초하여, 각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문제에 처한 인물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반응 표집.** 12가지 인생위기에 대해 가능한 반응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Berlin Group의 지혜에 대한 개념체계를 이론적 토대로 사용하였다. 인생문제들에 대한 고도로 발전된 지식체계를 사실적 지식, 과정적 지식, 인생맥락적 사고, 상대주의적 사고와 불확실성 인식의 차원에서 측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5가지 측면의 인지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상황평가 및 대처반응의 구체적 문항들은 일상적 능력 측정 (e.g., Cornelius & Caspi, 1987), 인생 곤경 분류 (e.g., McCrae, 1984)와 대처과정 (e.g., Folkman & Lazarus, 1988;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의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표2 참고). 12가지 상황 각각마다 36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반응을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채점기준 설정.** 본 설문지의 채점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보기접근 (exemplar approach, e.g., Orwoll & Perlmutter, 199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이 표집된 동일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30명의 성인들이 지혜롭다고 추천되었다. 이 판단자들은 청년층 11명, 중년층 11명과 노년층 8명으로 구성되었고, 남자 총 14명과 여자 총 16명이었다. 이들은 지혜설문지의 각 반응에 대하여 지혜수준을 판단하였다. 판단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평점을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cf., Cornelius & Caspi, 1987). 판단자들간 높은 일치도가 발견되었고, 연령과 성별 집단간에도 높

은 일치도를 보였다.

### 3. 지능의 측정

유동적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 추리 검사 (Number Series Test: Grimsley, Ruch, Warren & Ford, 1957) 와 도형지각 검사 (Figural Relations Matrices Test: Plemons, Willis & Baltes, 1978)를 사용하였다. 결정화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웨슬러 지능검사 (전용신, 서봉연과 이창우, 1963) 중 일반상식과 어휘 문제를 사용하였다. Cronbach의 alpha계수는 수추리 검사 (20문항)에서 .93, 도형지각검사 (12문항)에서 .87, 상식검사 (29문항)에서 .96, 그리고 어휘 검사 (34문항)에서 .95로 나타났다.

### 자료수집절차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전공한 조사자들이 연구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였다. 각 방문에서 조사자들은 위의 측정도구들을 통하여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지 및 검사지들은 시간제한 없이 실시되었다. 다만, 개인에 따른 시간소요의 차이가 커서, 필요시에는 조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번에 걸쳐 방문면접을

표 2. 지혜설문지의 구조 및 내용

지혜 기준	개념적 지시변인	측정 변인 (해당 문항수)
사실적 지식	정서적 평가 (Emotional appraisal) 상황 평가 (Situational appraisal) 위기 평가 (Stakes appraisal)	기쁨, 좌절감, 분노, 놀라움의 정도 평가 (4) 바람직성, 친숙성, 중요성, 통제성의 정도 평가 (4) 건강, 자존심, 일, 경제사정, 타인에 대한 존경심, 주위 사람의 행복의 측면에 대한 잠재적 위기 정도 평가 (6)
과정적 지식	대처책략에 관한 조언	문제중심적 해결, 인지적 문제해석, 수동적-의존적 행동, 회피적 사고에 대한 평가 (4)
불확실성의 인식	조언에 대한 결과 예측	각 대처책략에 따른 상황 호전도 평가 (4)
상대적 사고	상황의 개인적 의미에 대한 민감성	주변인물의 관점에서 상황의 사실적 지식 평가 (14)
인생맥락적 지식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대한 민감성	여러 차원에서 다른 상황에서 사실적 지식 및 조언 평가 비교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경우, 조사자들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각 설문지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읽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령층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결과 및 토의

#### 1. 지혜의 주관적 평가에서의 삼세대 비교

먼저, 지혜의 자기평가에 있어서 세대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자기자신평가에 대하여 3 (세대) X 5 (지혜기준)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하였고, 다각적 평균비교를 위하여 유의도 .05 수준에서 Bonferroni t-test를 실시하였다. 표3에 자기자신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5가지 기준 별로 제시되어있다.

표 3. 세대별 자기자신의 지혜로움 평가

	세대 (n = 40)		
	자녀	부모	조부모
전반적 평가			
M	3.79	3.63	3.56
SD	.40	.44	.53
사실적 지식			
M	3.32	3.40	3.37
SD	.65	.62	.63
과정적 지식			
M	4.02	3.84	3.79
SD	.54	.58	.69
인생맥락사고			
M	3.84	3.53	3.48
SD	.49	.71	.67
상대적 사고			
M	4.02	3.81	3.65
SD	.49	.53	.55
불확실성			
M	3.77	3.58	3.50
SD	.52	.52	.78

자기자신의 평가에 있어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나 조부모세대 보다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F(2, 78) = 2.89, p < .10), 집단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세대에 관계없이, 사실적 지식의 속성들이 다른 차원

의 속성들 보다 더 낮게 평가되었다 (F(4, 156) = 22.04, p < .01). 그러나, 세대와 지혜기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8, 312) = 2.02, p < .05). 표3에서 보듯이, 자기평가에 있어서 지혜기준에 따라 세대차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추후분석에서, 세대의 효과가 상대적 사고 (F(2, 78) = 5.06, p < .01)와 인생맥락적 사고 (F(2, 78) = 4.02, p < .05)에서만 유의하였다. 이 효과는 자녀세대 (각각, M = 3.84, 4.02)가 조부모세대 (각각, M = 3.48, 3.65) 보다 스스로의 상대적 사고와 인생맥락적 사고를 더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두 차원에 대한 부모세대의 자기평가 (각각, M = 3.53, 3.81)는 다른 세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원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 내에서 어느 세대가 더 지혜롭게 평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두 가족들에 의한 평가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4에 타인에 의한 평가의 평균이 기준별로 제시되어있다. 이 타인에 의한 평가에 대하여 3 (대상세대) X 5 (지혜기준)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하고, 다각적 평균비교를 위하여 유의도 .05 수준에서 Bonferroni t-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세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2, 78) = 8.63, p < .01), 중년 부모세대가 가족 내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되었고, 조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혜기준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는데 (F(4, 156) = 8.15, p < .01), 사람들은 평가대상에 상관없이 다른 차원보다 사실적 지식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효과는 대상세대와 지혜기준의 상호작용효과 (F(8, 312) = 3.14, p < .01)에 따라 다소 변경되었다. 추후분석에서, 대상세대의 주효과가 모든 기준에서, 즉 사실적 지식 (F(2, 78) = 6.09, p < .01), 과정적 지식 (F(2, 78) = 8.32, p < .01), 인생맥락적 사고(F(2, 78) = 5.98, p < .05),



표 4. 각 세대에 대한 지혜로움의 평가

	세대 (n = 40)		
	자녀	부모	조부모
전반적 평가			
M	3.48	3.68	3.33
SD	.37	.37	.69
사실적 지식			
M	3.19	3.55	3.28
SD	.66	.68	.80
과정적 지식			
M	3.57	3.83	3.42
SD	.70	.70	.92
인생맥락사고			
M	3.45	3.64	3.33
SD	.66	.64	.83
상대적 사고			
M	3.60	3.72	3.31
SD	.63	.63	.86
불확실성			
M	3.58	3.65	3.30
SD	.65	.67	.85

상대적 사고 ( $F(2, 78) = 8.44, p < .01$ ), 그리고 불확실성의 인식 ( $F(2,78) = 5.49, p < .01$ )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나 조부모세대 보다 가족에 의하여 더 지혜롭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 표4에서 보듯이, 부모세대는 사실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에서 자녀세대 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고, 5가지 기준 모두에서 조부모세대 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다른 3가지 기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분석결과, 자기자신의 평가는 세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세대가 비교적 본인의 지혜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의 자기보고 연구들 (e.g., Clayton & Birren, 1980; Meacham, 1990; Perlmutter, Adams, Nyquist, & Kaplan, 1988)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나 조부모세대에 비하여 더 지혜롭다고 평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 내에서 부모세대가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자기자신과 타인의 평가를 비교한 그림1을 보면, 중년 부모세대가 가장 큰 일치를 나타냈고, 자녀세대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간의 일치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세대별로 이 두가지 주관적 평가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자기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가 자녀세대 ( $r = .03$ )와 조부모세대 ( $r = .01$ )에서는 서로 관계가 없었으며, 부모세대 ( $r = .40, p < .05$ )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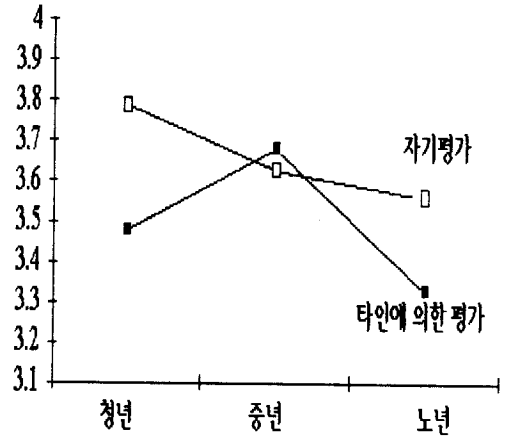


그림 1. 세대별 주관적 지혜평가의 비교

이러한 지혜의 자기평가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지혜가 삼세대간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혜의 주관적 평가가 지혜의 변화에 대한 규준적인 개념과는 다른 시간적 양상을 보일 수 있다 (Clayton & Birren, 1980; Heckhausen, Dixon, & Baltes, 1989). 오히려, 각 세대들의 자기평가는 성인기 지혜의 발

달적 변화가 아닌, 서로 다른 인생관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Heckhausen & Krueger, 1993).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은 본인의 “발달적 기대 (developmental expectations)” (Heckhausen & Krueger, 1993, p. 101)나 본인의 현 지위에 대한 시간적, 사회적 비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청년들은 소신적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지각하거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발달적 낙관론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반대로, 노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본인의 지혜를 과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의 평가에 있어서도, 조부모세대가 다른 세대 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되지는 않았다. 대신에 부모세대가 다른 세대 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되었다. 더 나아가 부모세대는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간 가장 큰 유사성을 보였다.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간 가장 큰 불일치는 자녀세대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현대 우리나라 가족 내에서 노년세대가 더 이상 지혜롭지 않으며, 중년의 부모세대가 지혜로운 인물의 위치를 이어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기는 어렵고, 대신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노년세대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지혜가 아닌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노년세대의 자기평가는 지혜에 대한 자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Meacham (1983)은 이러한 자각을 지혜의 중요한 자질로 보았다. 그는 지혜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보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자녀세대의 자기 자신의 지혜에 대한 낙관론은 오히려 지혜의 결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평가는 자기향상적 편견 (self-enhancing biases)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고되어왔다 (Heckhausen & Krueger, 1993; Ross, 1989). 현재 우리 나라 가족 내에서 중년세대가 중심적 지위와 역할을 갖게됨으로써, 가족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상실한 노년세대가 낮아진 자아감으로 스스로를 덜 지혜롭게 평가했을 수 있다. 반면에 자녀세대의 과대평가는 높은 자아존중감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Neugarten, Moore, & Lowe, 1965). 따라서 주관적인 보고는 객관적 증거 없이 그 자체로만은 타당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관적 평가에 대한 결과는 객관적인 지혜측정의 결과와 함께 비교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혜의 객관적 측정에서의 삼세대 비교

지혜실문지 수행에서의 개인의 반응은 판단자들의 채점기준에 대하여 채점되었다. 개인 수행점수는 개인의 응답과 판단자들의 응답 평균간의 상관계수로 산출되었다. 즉, 채점기준에 근접하게 응답한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었다. 수행점수의 Cronbach의 alpha계수는 .88이었다.

조부모세대의 평균 수행점수는 .48 (SD = .13), 부모세대의 평균 수행점수는 .46 (SD = .13), 그리고 자녀세대의 평균 수행점수는 .52 (SD = .13)로 나타났다. 평균 수행점수에 대하여 연령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의 직선적 효과 ( $\beta = -.07$ )와 2차곡선 효과 ( $\beta = .16$ ,  $F(2, 117) = 1.90$ )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윗세대가 아랫세대 보다 더 지혜로운 판단력을 보이리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각 세대별로 지혜점수를 연령에 대해 회귀분석하였다. 연령이 자녀세대의 지혜점수 ( $\beta = .31$ ,  $F(1, 38) = 3.97$ ,  $p < .10$ )와, 부모세대의 지혜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 $\beta = .37$ ,  $F(1, 38) = 5.90$ ,  $p < .05$ ), 조부모세대의 지혜점수는 연령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 $\beta = .17$ ,  $F(1, 38) = 1.10$ ). 즉,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에서는 지혜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조부모세대에서는 연령에 따라 지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대별로 우수점수기록자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상위 16% (평균 지혜점수 .60 이상)에 속하는 대상은 모두 18명으로, 자녀세대 6명, 부모세대 5명, 조부모세대 7명이었다. 즉, 우수점수 기록자들의 분포는 세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런 우수점수기록자들을 지혜로운 판단력의 소유자라고 간주한다면, 노인들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 손실과 지혜와 같은 고도로 성숙된 지식체계와 사고과정의 유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위의 결과들은 지혜설문지 수행점수가 조부모 노년세대에서 가장 높으리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 자녀세대가 부모나 조부모세대에 비해 다소 높은 수행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수점수기록자들도 세대별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령과 지혜수행의 세대내 분석은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는 결과들은 동시출생집단효과와 연령효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동시출생집단효과가 아랫세대의 지혜점수에 유리하게 작용하나, 각 세대별로 지혜는 연령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다만 동시출생집단효과는 전체적으로 지혜점수와 연령간의 긍정적 관계를 덜 두드러지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동시출생집단효과, 즉 세대간의 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자녀세대는 윗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사회적 혜택을 입어서,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청년이었을 때 비해서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말한다. 한 예로, 조부모세대는 긴 세월을 걸쳐 직접 인생을 겪어 인생지식을 축적한 반면, 요즘 자녀세대는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인생사를 경험 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 3. 지혜와 지능의 발달 양상 비교

먼저 유동적 지능과 결정화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4가지 지능검사에의 T점수들 ( $M = 50, SD = 10$ )을 3 (세대) X 4 (지능검사) 반복 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다각적 평균비교를 위하여 유의도 수준 .05에서 Bonferroni t-test를 하였다. 그 결과, 세대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 $F(2, 78) = 84.68, p < .01$ ), 지능 종류에 상관없이 자녀세대 ( $M = 57.1$ )가 부모세대 ( $M = 51.39$ )와 조부모세대 ( $M = 41.51$ )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세대차이가 지능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F(6, 234) = 3.25, p < .01$ ). 추후분석에 의하면, 4가지 지능검사 모두에서 조부모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부모세대가 자녀세대 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2에서 삼세대간 지혜점수와 지능점수들을 비교해보았다. 지혜점수는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인 반면, 지능점수들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큰 대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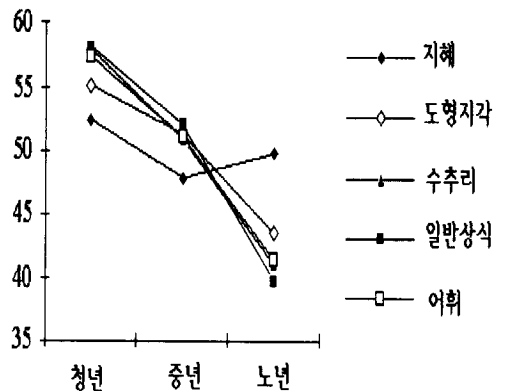


그림 2. 지혜설문지와 지능검사 점수들의 세대별 비교 (각 점수는  $M = 50, SD = 10$ 의 표준화된 T 점수로 환산되었음)

지능검사 수행점수들을 연령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직선적 효과가 4가지 지능검사 수행점수 모두를 예측하였다: 수추리검사 ( $\beta = -.70$ ,  $F(1, 118) = 116.55$ ,  $p < .001$ ), 도형지각검사 ( $\beta = -.49$ ,  $F(1, 118) = 37.03$ ,  $p < .001$ ), 상식검사 ( $\beta = -.71$ ,  $F(1, 118) = 129.21$ ,  $p < .001$ ), 어휘검사 ( $\beta = -.63$ ,  $F(1, 118) = 74.46$ ,  $p < .001$ ).

다음으로, 세대에 상관없이 연령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세대별로 지능점수들을 연령에 대해 회귀 분석을 하였다. 자녀세대의 어휘점수가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 $\beta = .44$ ,  $F(1, 38) = 8.90$ ,  $p < .01$ ), 부모세대( $\beta = -.05$ ,  $F(1, 38) = .11$ )나 조부모세대 ( $\beta = .02$ ,  $F(1, 38) = .01$ )의 어휘점수는 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수추리점수는 자녀세대 ( $\beta = -.17$ ,  $F(1, 38) = 1.09$ )나 부모세대 ( $\beta = -.16$ ,  $F(1, 38) = .95$ )에서는 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조부모세대의 수추리점수는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beta = -.31$ ,  $F(1, 38) = 4.15$ ,  $p < .05$ ). 다른 지능점수들은 연령에 대해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세대 각각, 도형지각 ( $\beta = -.04$ ,  $-.21$ ,  $-.22$ ,  $F(1, 38) = .05$ ,  $1.79$ ,  $1.92$ , 상식 ( $\beta = -.07$ ,  $-.08$ ,  $.11$ ,  $F(1, 38) = .16$ ,  $.24$ ,  $.46$ ]. 즉, 각 세대 내에서 인지능력이 대체적으로 약간 감소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나타낸다. 예외적으로, 어휘능력은 청년기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수추리 능력은 노년기 동안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지혜와 지능의 관계

지혜가 유동적 지능 보다 결정화된 지능에 더 유사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혜측정치들과 지능점수들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5 참조). 지혜설문지의 수행점수는 수추리점수, 도형지각점수, 그리고 상식점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 어휘점수와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두가

지 유동적 지능점수와 지혜점수 간의 상관계수 평균은  $-.01$ 이었고, 두가지 결정화된 지능점수와 지혜점수 간의 상관계수 평균은  $.10$ 이었다. 지혜의 주관적 평가 중, 자기자신의 평가는 어휘점수와 상식점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한 평가는 4가지 지능검사들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지혜의 주관적 평가가 지능수행 보다 지혜의 객관적 수행에 더 유사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지혜의 주관적인 평가는 객관적 설문지 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 $r = .29$ ,  $p < .01$ ). 또한, 지혜의 주관적 평가는 유동적 지능점수들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수추리와의  $r = .00$ ; 도형지각과의  $r = .16$ ), 결정화된 지능점수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상식과의  $r = .33$ ,  $p < .01$ ; 어휘와의  $r = .24$ ,  $p < .01$ ). 반면에, 4가지 지능검사들간의 상관계수들은 거의가  $.60$ 과  $.70$ 대로 나타났고 (표5 참고), 상관계수들의 평균은  $.68$ 이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지혜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수행이 유동적 지능보다는 결정화된 지능에 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적 지능점수들은 타인에 의한 평가와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결정화된 지능점수들은 지혜의 세가지 측정치들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는 지혜가 결정화된 지능의 고도화된 형태로 보는 Berlin Group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언어적 이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과 같이, 결정화된 지능은 일상 생활에 능숙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능력들은 어려운 인생 문제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관계수들이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게다가, 지혜와 지능간의 상관계수들 (평균  $r = .18$ )이 지능들 간의 상관계수들 (평균  $r =$

표 5. 지혜 측정과 지능검사 수행간의 관계

지혜 측정	지능검사			
	수추리	도형추리	상식	언어
지혜설문지	.03	-.06	.08	.18*
자기평가	.00	.16	.33**	.24**
타인에 의한 평가	.31**	.32**	.34**	.25*
지능검사				
수추리	1.00			
도형추리	.65**	1.00		
상식	.76**	.68**	1.00	
언어	.65**	.56**	.79**	1.0

\* p < .05    \*\* p < .01

.68) 보다 훨씬 더 작았다. 지혜설문지와 결정화된 지능검사들은 인지 기능의 어떤 공통된 측면을 켈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인지적 기술은, 학구적 상황에 의하여 촉진되고<sup>2)</sup> 전통적인 지능검사에서의 수행과 관련되는 과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 5. 지혜의 세대간 전이

지혜설문지의 수행과 지혜로움의 주관적 평가에 대하여 세대 쌍들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6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sup>3)</sup>

먼저, 지혜설문지의 수행에 있어서 자녀세대와 그들의 부모간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있었다. 그러나, 자녀세대와 조부모세대 간에는 유사성이 거의 없었다. 자녀세대와 부모의 객관적 지혜점수 간의 유의한 관계는, 지혜에 관련된 지식이 많은 부모의 자녀가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지혜에 관련된 지식이 가족 내에서 전이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양방향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관계일 뿐, 전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만약 지식이 가족 토론이나 대화와 같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된다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혜로움의 자기평가에서는 세대 쌍들 간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평가의 자기향상적 편견 때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녀세대와 조부모세대의 경우 자기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가족에게서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서로 관련성이 없었다.

셋째, 지혜로움의 타인에 의한 평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조부모에 대한 평가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평가와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위의 결과들은 연구자의 기대에 일치하였으나, 왜 지혜로움의 타인에 의한 평가에 대한 결과와 지혜설문지 수행에 대한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현 연구 내에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3) 타인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의 세대들간의 상관계수의 경우, 각 세대는 다른 두 세대에 의하여 평가되었지만, 상관계수가 halo effects에 의하여 편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2세대 중 한 세대만의 평가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간의 상관계수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평가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였다. 물론 조부모도 자녀와 부모세대를 모두 평가하였으나, 조부모의 평가는 인위적으로 과장된 상관계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2) 교육배경과 지혜설문지의 상관계수는 .10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조적으로 교육과 지능간의 상관계수는 수추리 검사에서 .60, 도형지각검사에서 .52, 언어검사에서 .74, 그리고 상식검사에서 .80으로 크게 유의하였다.

표 6. 지혜의 삼세대간 유사성

지혜 기준	세대간 상관계수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	자녀세대와 조부모세대
지혜설문지	.64***	.18	.31*
지혜로움의 자기자신 평가	.12	.12	-.07
지혜로움의 타인에 의한 평가	.01	.44**	.53***

\* P < .10    \*\* P < .01    \*\*\*P < .001

### 전체 논의

본 연구는 지혜를 성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독특한 능력의 영역의 하나로서 조사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인기 일상적 지식 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들과 노년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아랫세대들 보다 더 지혜로울 것인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지혜가 일반 지능과는 구분되는 지식 체계 및 인지양식을 통합한 독특한 개념임을 보여 주었다. 지혜는 성인기에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혜에 대한 암시적 접근과 명시적 접근을 통합하였다. 두 접근에 따른 지혜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측정은 서로 연관되나, 다소 다른 행동과 기능 측면을 재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관적 평가와 지혜설문지의 수행은 대부분 유의한 긍정적 상관을 보여서, 이전의 암시적 이론과 객관적 검사 수행의 비교 연구결과(e.g., Sternberg, 1985)에 일치한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은 여러모로 서로 다르다. 주관적인 지혜의 평가는 자기향상(e.g., Heckhausen & Krueger, 1993; Ross, 1989), 사회적 고정관념(e.g., Neugarten et al., 1965), 또는 halo effect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의한 평가도 자기평가와 마찬가지로 편파

되기 쉽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지혜 평가하게 했을 때, 개인적인 인상이나 관계의 질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지혜설문지는 지혜라는 심리적 부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범위나 본질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Sternberg, 1985). 또한, 지혜설문지가 다양한 위기상황을 포함함으로써 실제 인생문제들을 담으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실제 상황에서의 실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혜설문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이 어려운 인생문제에서 실제로 잘 판단하고 좋은 조언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어떤 방법이 개인의 지혜를 더 잘 잴 수 있는가는 분명치 말할 수 없지만, 각 방법은 지혜의 다른 측면을 재며 단독으로는 타당성이 제한될 것이다.

지혜는 성인기를 통해 발달하는가? 본연구결과는 가족 내에서 노인들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세대에 따른 일관된 증가추세가 없었고, 삼세대간 지혜의 주관적인 자기평가, 타인에 의한 평가와 객관적인 수행 평균점수가 비슷하였다. 대신에 중년 부모세대가 주관적 평가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 자녀세대가 객관적인 측정에서 가장 높은 지혜점수를 기록하였다.

성인기를 통해 지혜와 지능은 서로 다르게 발

달하는가? 지혜가 세대간 안정추세를 보인 반면, 유동적 지능과 결정화된 지능은 모두 세대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본연구결과는 지적 능력의 본질과 형태가 성인기에 변화하고, 성인기의 지적 기능을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주었다 (e.g., Berg & Sternberg, 1992). 그러나, 이 결과들은 유동적 지능과 결정화된 지능이 증가와 감소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성인기 지능의 이원발달모형 (Baltes et al., 1984)을 지지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 결정화된 지능은 성인기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며, 결정화된 지능은 감소한다고 보고되어왔다 (Horn, 1978 참고). 본 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난 지능의 발달추세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세대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배경은 인지기능의 강력한 결정요인이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연구에서 나타난 노년세대의 부정적 결과는 조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부모세대의 대부분이 전혀 형식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초등교육수준인 반면, 그들의 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재학 중이거나 대졸이었다.

많은 연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령과 함께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심리기능들을 조사해왔다 (e.g., Cornelius & Caspi, 1998; Denney, 1982; Sinnott & Cavanaugh, 1991). 일상적 문제해결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과 유사하게, 지혜는 학구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을 덜 지향하고, 일상의 실용적 요구에 더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적 지능과 결정화된 지능이론 (Horn, 1978 참조)이 지혜라는 고도의 지식체계에 관련된 지적 활동을 대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실질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능력과 지혜 등 다양한 지식인자들을 통해서 성인기 지적 능력의 다차원적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지혜는 지능과 달리 세대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소극적 결과는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삼세대를 단기간 횡단적으로 비교하였다. 따라서, 결과에 나타난 세대차이는 순수한 연령에 관련된 발달적 추세가기 보다는 동시출생집단과 연령의 효과가 혼합된 것일 수 있다. 이 해석을 각 세대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지혜에 관련된 지식이 적어도 중년기까지는 연령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현시대의 청년들은 노년세대에 비하여 지혜의 습득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지혜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어떤 구체적 상황과 조건에서 초래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인생지식을 습득하는 통로가 청년들에게 더 개방되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혜습득의 가능한 기제로서 가족맥락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과 본모기를 통해, 가족은 지혜에 관련된 지식체계가 가족구성원들간에 공유되고 가족간 전이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세대 쌍들간 유의한 상관계수들 (예, 자녀-부모의 객관적 수행)은 지혜의 세대간 전이를 의미할 수 있으나, 세대간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생물적 유사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자녀-부모 쌍과 자녀-조부모 쌍은 유전적으로 유사하나, 부모-조부모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연구대상 중 대부분의 중년여자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노년 연구대상과 생물적 관계가 없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지혜 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보긴 힘들지만, 다른 영향요인들에 의하여 (예, 성격) 매개될 수 있을 것이다.

Erikson이 말한 것과는 달리, 지혜가 인생의 특정 단계에서 그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긴 기간에 걸친 자기 성장을 통해 서서히 발달할 지도 모른다. 저해로워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원하나 소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발달의 최

고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혜의 발달적 과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혜를 통해 노년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이제껏 노화 과정에 지혜와 같은 성공을 연관시키는 것이 모순되고 자연스럽지 못한 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Baltes와 Baltes (1990)는 현시대에서 노년기를 연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과제는 주어진 현실을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버리고, 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창조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지혜는 노년기에 원칙으로나마 무엇이 가능한가를 찾는 창의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전용신·서봉연·이창우 (1963). *KWIS 실시 요강*. 서울: 중앙교육 연구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Cambrid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Dittmann-Kohli, F., & Dixon, R. A. (1984). New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adulthood: Toward a dual-process conception and a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O. G. Brim, J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33-76). New York: Academic Press.
- Baltes, P. B., & Smith, J. (1990). Toward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87-120).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g, C. A., & Sternberg, R. J. (1992). Adult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7*, 221-231.
- Birren, J. E., & Renner, V. J. (1977). Research on the psychology of aging: Principles and experimentation.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Vol. 1).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Blanchard-Fields, F. (1986). Reasoning on social dilemma varying in emotional saliency: An adult developmental perspective. *Psychology and Aging, 1*, 325-333.
- Ceci, S. J., & Liker, J. (1986). Academic and nonacademic intelligence: An experimental separation. In R. J. Sternberg & R. K. Wagner (Eds.), *Practical intelligence: Nature and origins of competence in the everyday world* (pp. 119-14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yton, V.,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 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O. R. Brim, J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pp. 103-135). New York: Academic Press.
- Cornelius, S. W., & Caspi, A. (1987). Everyday problem solving in adulthood and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2*, 144-153.
- Cornelius, S. W., Kenny, S., & Caspi, A. (1989). Academic and everyday intelligence in adulthood: Conceptions of self and ability tests. In J. D. Sinnott (Ed.), *Everyday problem solving: Theory and applications* (pp. 191-210). New York: Praeger.
- Denney, N. W. (1982). Aging and cognitive



- changes. In B. B. Wolman (E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p. 807-827).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Dittmann-Kohli, F., & Baltes, P. B. (1990). Toward a Neofunctionalist conception of adult intellectual development: Wisdom as a prototypical case. In C. N. Alexander & E. J. Langer (Eds.), *Higher Stages of human development* (pp. 54-7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Norton.
- Folkman, S., & Lazarus, R. S. (1988). Coping as a mediator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66-475.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oldfried, M. R., & D'Zurilla, T. J. (1969). A behavioral-analytic model for assessing competence. In C. D. Spielberger (Ed.), *Current topics in clinical and community psychology* (Vol. 1, pp. 151-196). New York: Academic Press.
- Grimsley, G., Ruch, F. L., Warren, N. D., & Ford, J. S. (1957). *Employ Aptitude Survey*. Los Angeles: Psychological Services.
- Gutmann, D. (1987). *Reclaimed powers: Toward a new psychology of men and women in later life*. New York: Basic Books.
- Heckhausen, J., Dixon, R. A., & Baltes, P. B. (1989). Gains and losses in development throughout adulthood as perceived by different adult age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09-121.
- Heckhausen, J., & Krueger, J. (1993). Developmental expectations for the self and most other people: Age grading in three functions of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39-548.
- Ho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Basel: Karger.
- Horn, J. L. (1978). Human ability systems. In P. B. Baltes (Ed.),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1, pp. 211-256). New York: Academic Press.
- Kramer, D. A., & Woodruff, D. S. (1986). Relativistic and dialectical thought in three adult age groups. *Human Development*, *29*, 280-290.
- Labouvie-Vief, G. (1985). Intelligence and cognition.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and aging* (pp. 500-530). New York: Nostrand Reinhold.
- Labouvie-Vief, G. (1981). Proactive and reactive aspects of constructivism: Growth and aging life-span perspective. In R. M. Lerner & N. A. Busch-Rossnagel (Eds.), *Individual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pp. 197-230). New York: Academic Press.
- Maciel, A. G., Sowarka, D., Smith, J., & Baltes, P. B. (1992). Feature of wisdom: Prototypical attributes of wise people. Poster presented at the 10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ashington, DC.
- McCrae, R. R. (1984).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Loss, Threat, and Challe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19-928.
- Meacham, J. A. (1983). Wisdom and the context of knowledge: Knowing that one doesn't know. In D. Kuhn & J. A. Meacham (Eds.), *On the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p. 111-134). Basel: Karger.
- Neugarten, B. L., Moore, J. O., & Lowe, J. C. (1965). Age norms,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 710-717.
- Orwell, L., & Perlmutter, M. (1990). The study of wise persons: Integrating a personality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160-177).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lmutter, M., Adams, C., Nyquist, L., & Kaplan, C. (1988). *Beliefs about wisdom*. Unpublished data.
- Perlmutter, M., Kaplan, M., & Nyquist, L. (1990). Development of adaptive competence in adulthood. *Human Development*, *33*, 185-197.
- Plemons, J. K., Willis, S. L., & Baltes, P. B. (1978). Modifiability of fluid intelligence in aging: A short-term longitudinal training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3*, 224-231.
- Rosch, E. (1975).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192-233.
- Ross, M. (1989). Relation of implicit theories to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histories. *Psychological Review*, *96*, 341-357.
- Ryff, C. D. (1984).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the inside: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change in adulthood and aging. In P. B. Baltes & O. G. Brim, J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6, pp. 243-279). New York: Academic Press.
- Salthouse, T. A. (1984). Effects of age and skill in typ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3*, 345-371.
- Sinnott, J. D., & Cavanaugh, J. C. (1992). *Bridging paradigms: Positive development in adulthood and cognitive aging*. New York: Praeger.
- Staudinger, U. M., Smith, J., & Baltes, P. B., (1992). Wisdom-related knowledge in a life review task: Age differences and the role of professional specialization. *Psychology and Aging*, *7*, 271-281.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07-627.
- Stern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 Development of Wisdom and Intelligence in Three-Generation Families

YooKyung Kwon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 Ec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wisdom and intelligence among three generations within families in order to highlight multidimensional and multidirectional nature of adult intellectual development. Wisdom was assessed in three ways. First, subjects rated themselves on five wisdom criteria (factual and procedural knowledge, relativism, contextualism, and uncertainty). Second, subjects were rated by two family members on these criteria. Third, a Wisdom Inventory was administered to measure adults' knowledge about uncertain life dilemmas. Significant but modest relationships among self-ratings, ratings by others, and objective performance were obtained, suggesting that they tap related but different aspects of wisdom.

Wisdom was stable across generations of young adult children, middle-aged parents, and older grandparents with a slight negative trend. The older grandparent generation did not achieve the highest score on any wisdom measure. However, age was positively related to performance on the Wisdom Inventory within generations. Cohort effects favoring the younger generations may have masked age-related increases in wisdom. By contrast,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showed sharp decreases across generations. Wisdom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between generation dyads, suggesting a possibl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within families.